



‘캠퍼스 서울’ 설립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기기로 꾸민 모바일 고사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홍문중 미래창조과학부총리실장, 원희익 원장, 선다 피차이 구글 수석 부사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브리짓 빔 구글 창업지원원 수석 매니저,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사진제공 | 구글코리아

실리콘밸리의 DNA 한국에 심는다

구글, 아시아 최초 ‘캠퍼스 서울’ 설립

IT 창업가 위한 공간 마련…내년 개관
영국·이스라엘 이어 세계 3번째 설립
최고의 IT 인프라…창의적 성과 기대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를 찾아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신생 벤처) 열풍이 불면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공한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가운데 세계적 혁신기업 구글이 창업가를 위한 전용공간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 연다고 밝혀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글, 아시아 최초의 ‘캠퍼스’ 서울에 설립

구글은 27일 서울 대치동 오토웨이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캠퍼스 서울’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창업가를 위한 공간 ‘캠퍼스 서울’의 설립은 영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3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다.

구글은 이 곳을 통해 창업자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 세계로 나갈 기회를 지원하고, 구글 직원의 멘토링과 기술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엄마를 위한 캠퍼스’, ‘캠퍼스 EDU’, ‘테크토크’ 등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오토웨이타워에 2015년 개관 예정인 ‘캠퍼스 서울’의 규모는 2012년 만들어진 첫 캠퍼스 ‘캠퍼스 런던’과 비슷한 규모(약 2000m²)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캠퍼스 서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기존 캠퍼스들이 이미 가시적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 구글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내 예비창업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개관 후 1년 동안 약 7만 명 이상에게 다양한 행사와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제공한 캠퍼스 런던은 27개 스타트업이 3400만 파운드(약 57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170개국 35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집단지성 모바일 통역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한국의 플리토도 이 곳에서 성장 기반을 다졌다.

●한국인의 재능이 설립 이유

그럼 왜 한국일까. 인터넷 환경 등 신생벤처가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유무선인터넷 환경의 폭발적 성장과 4000만에 육박하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벤처생태계에 자양분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그만큼 창업을 꿈꾸는 창의적 인재들이 많고, 벡슨과 컴투스 등 이미 해외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도 있다. 선다 피차이 구글 안드로이드·크롬·엑스 수석 부사장은 이에 대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가장 창의적 성과를 중 다수가 한국에서 나왔다”며 “한국인의 재능, 상상력과 끈기야말로 구글이 캠퍼스 서울을 설립하게 된 이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민간과 기업, 정부가 모두 함께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퍼스 서울 설립을 제공한 캠퍼스 런던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주춧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기업과 정부도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이버 등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은 물론 SK텔레콤과 KT 등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번 구글의 캠퍼스 서울 설립에 한 몫을 한 정부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면역력이 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

| 이지스한의원 장혁 원장

류마티스관절염, AIR프로그램 치료로 뿌리 뽑자

혹시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있거나 또 이런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만성적일 경우에는 류마티스관절염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류마티스관절염은 활막 조직을 침범하는 만성적인 자가면역질환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류마티스관절염이 관절염이 아닌 자가면역질환의 한 종류라는 점에 의아해할 수도 있다. 이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면역계의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류마티스관절염이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발병 후 2년 동안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환자의 90%에게 관절손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관절이 파괴되어 관절변형과 함께 보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일상생활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이 질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요인, 면역요인, 호르몬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약 5~6배 정도 발병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관절변형과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류마티스관절염은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 최근에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면역계를 정상화 시켜주는 AIR프로그램치료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이지스한의원의 AIR프로그램 치료가 있다. 이 치료방법은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초기 3개월, 중기 6개월, 후기 3개월 총 1년의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한다. 화수음양단, 면역탕약, 진수고, 왕뜸치료, 면역약침요법, 명상생식요법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알맞게 치료를 진행해 효과적으로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 총 1년간의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면역계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AIR프로그램 치료가 끝난 후에 환자 스스로의 관리와 예방만으로도 충분히 질환을 관리할 수가 있다.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이지스한의원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평소 자가면역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지스한의원을 찾아 보시기를 바란다.

이지스한의원 장혁 원장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의료봉사단체 침구학회 의료부장

대한한방류마티스학회 정회원

한방자기면역질환연구회 정회원

대한중경학회회 정회원



추석 벌초하고 왔더니 손·팔이 저리네…왜?

장시간 예초기 사용 ‘수완진동증후군’ 유발
진동공구 사용땐 10분마다 휴식·교대 필수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서 벌초가 한창이다. 벌초를 할 때는 밭에 쏘이거나 나뭇가지에 굽히는 눈에 보이는 사고도 조심해야 하지만 벌초 후에 나타나는 근육통이나 신경증과 같은 후유증에도 주의해야 한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산을 오르내려야 하고 풀을 베고 나르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어깨, 등, 허리, 손목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 특히 어깨에 메고 사용하면 예초기는 연료를 포함하면 무게가 10kg 이상인데다 모터 회전에 따른 진동이 커서 어깨와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갈 수 있다. 장시간 사용하면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벌초를 지속하게 되면 ‘수완진동증후군(Hand-arm vibration syndrome)’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수완진동증후군은 진동공구를 오래 사용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근육과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이 증후군이 생기면 손과 팔 어깨가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면서 힘이 빠지고 손가락 끝이 차갑고 창백해진다.

●예초기 등에 붙여 메고 2~3명 교대해야

벌초 전에 안전 장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긴소매, 긴바지를 입고 신발은 안전화나 등산화가 좋다. 목이 긴 고무장화는 예초기에 닿으면 찢어져 발을 다칠 위험이 있고, 발목을 지지하지 못해 발목을 뺄 수 있다. 예초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강이와 안면에 보호대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벌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전신의 근육과 관절의 긴장



을 푸는 것이 좋다. 예초기는 어깨 끈을 조절해 등에 바짝 붙여 메고 끈에 쿠션이 없을 때는 어깨에 수건을 덧대야 피로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수완진동증후군은 한 번 생기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가끔적 진동이 적거나 손잡이로 진동이 전파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해 예방해야 한다. 손과 팔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여주는 방진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초기나 전기톱을 사용할 때는 10분마다 쉬고 두세 사람이 교대 작업해야 한다. 쉴 때는 휴식을 피하고 어깨와 팔 스트레칭을 해줘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낮이나 갈퀴 작업을 하는 사람도 20분 간격으로 허리를 펴고 쉬는 것이 좋다. 벌초 뒤에 곧바로 운전하는 것은 근육을 더욱 경직되게 하므로 스트레칭이나 사우나 등으로 어깨 근육을 풀어준 뒤 운전해야 한다.

남개병원 송병욱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귀가 후 빠른간 통증이 느껴질 때는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해 주면 통증이 줄어든다”며 “일주일 이상 통증이 계속될 때는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학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ajaplo

결혼 후 가입한 ‘부부형 보험’ 이혼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이혼할 경우 이혼 전에 가입했던 ‘부부형 보험’의 보험금을 탈 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이혼한 A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이혼하기 전에 남편과 함께 부부형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생각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A씨와 같이 부부형 보험 상품에 대한 문제점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부형 보험은 남편 또는 부인을 ‘주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배우자를 ‘종 피보험자’로 정해 놓는 보험이다. 문제는 부부형 보험 대부분이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기간 중 이혼할 경우 ‘종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상품의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시 보장 불가’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험 모집인들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2010년 대법원이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가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원은 해당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이혼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행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감액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등 계약 변경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상품설명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학 기자

‘소상공인의 차’ 다마스·라보가 돌아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생산 재개
사전계약 3000여대 인기 여전

‘소상공인의 차, 다마스와 라보가 돌아왔다.’

한국지엠주식회사는 27일 경차 전문 생산공장인 창원공장에서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 재개 기념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사 사장은 “정부와 창원시 그리고 다마스, 라보에 대한 고객 성원이 없었다면 이 두 차종의 판매 재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마스와 라보는 1991년 판매를 시작한 지난해 말 단종될 때까지 각각 26만823대, 12만4256대가 판매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로싼 가격과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LPG 차량으로 유지비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6월 정부가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강화하면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등을 장착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법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다마스와 라보가 재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소비자의 힘이였다. 지난해 11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단종 전 다마스와 라보를 확보하기 위해 사재기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다마스와 라보는 영업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1년에 20만km 이상을 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직원들이 출고를 앞둔 미니밴 다마스(위)와 미니트럭 라보를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단종이 결정됐던 다마스와 라보는 중소기업인들의 청원에 힘입어 생산이 재개됐다. 사진제공 | 한국지엠

품, 레저스포츠용품, 기타 스포츠 및 레저관련 용품은 물론 운동장·생활체육시설과 골프장비 및 용품, 스포츠 의료기기 용품 등으로 이뤄진다. 참가업체에 보다 많은 홍보와 최적의 마케팅장소를 제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하면 무료관람 초청장을 보내준다.

한편 같은 기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동아전람 주관의 ‘제36회 MBC건축박람회’도 주목받

고 있다. 건축에 관한 최신정보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이번 박람회는 ‘2014 동아 냉난방 및 건축설비 박람회’와 ‘사이버 건축박람회’가 동시에 진행된다.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전원주택, 창고, 냉·난방기자재 및 건축 설비전으로 전시된다. 350여 업체가 참가해 3000여 아이템을 볼 수 있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영근 기자

편민 | 곽정환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서울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30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열려

MBC가 주최하고 (주)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4회 서울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가 30일부터 9월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헬스·피트니스와 아웃도어용품, 등산 및 캠핑용품, 자전거, 구기 스포츠용